

나주시, 중학생 미국 현지 정규수업 참여... 글로벌 역량 강화

17일간 메릴랜드주 현지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 학생 6명,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교장 표창 수상

전라남도 나주시가 겨울방학 기간 중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학교 정규수업과 문화 체험을 연계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중학생 28명이 참여한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지난 8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28명과 인솔자 4명이 참여해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17일간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현지 고등학교에 등교해 수학, 과학 등 정규 교과 수업에 참여하며 영어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 방식을 직접 경험했다.

이를 통해 교과 내용을 영어로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실천형 학습을 수행

했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발표 역량, 자신감을 함께 키웠다.

가정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미국 가정에서 일상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했고 문화적 차이를 체험했다.

감사 편지 쓰기와 영어 일기 작성 등 활동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영어로 표현하는 경험도 쌓았다.

현장 체험 활동으로는 워싱턴 D.C.와 뉴욕 일대를 방문해 한국전쟁기념관, 국회의사당, 자연사박물관 등을 견학하며 미국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했고 뉴욕 월 스트리트와 타임스퀘어 방문을 통해 글로벌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도 체험했다.

또한 현지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 전통 놀이를 소개하고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상호 문화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수 기간에 수업 참여도와 미션 수행, 생활 태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금성중 이승찬 학생 등 6명에게는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장 표창이 수여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현지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경험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외국어를 활용하는 진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 글로벌 교육을 지속 확대해 지역 인재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고흥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마을공동빨래방' 본격 운영 동일면 주민 생활편의 향상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기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동일면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한 '마을공동빨래방'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을 활용하고,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투입해 추진됐다. 군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해 왔다.

마을공동빨래방은 대형 세탁기 2대와 건조기 3대 등 최신 장비를 갖춰 이불 등 부피가 큰 세탁물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평소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일면 부녀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 지원에 참여해 세탁물 수거와 배달, 이용 안내까지 도울 예정이다. 이는 주민 주도의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고향을 응원하는 소중한 기부금이 주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마을공동빨래방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부자의 뜻이 군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형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흥/박도일 기자

“소상공인이 웃어야 강진이 산다” 민생소통 행보

강진군 공직자-유관기관-상가번영회 발벗고 나서, 경제 활력 도모

강진군이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군수와 상인회는 물론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12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강진읍 상가 일대를 방문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 직원이 동참하는 '설 맞이 지역 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가 방문에는 강 군수를 비롯해 임영관 강진 중앙로상가번영회장, 김동삼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 상권 리더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동행했다. 이들은 약 2시간 동안 중앙로 상가 및 미니리빙축길 일

대를 순회하며 상인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건네고, 명절 대목 체험 경기와 애로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특히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기관장의 방문을 넘어, 강진군 전 공직자가 실질적인 소비 진작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명절 전 12일부터 13일까지 군청 구내식당 운영을 축소하고, 직원들이 관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했다.

이에 따라 군청 실·과·소 및 읍·면 직원들은 부서별로 지정된 담당 구역의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회식을 진행하고, 제품 용품과 명절 선물을 관내 상가에서 구입하는 등 위축된 소비 심리를 녹이는 데 힘



을 보냈다.

강진원 군수는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군의 지원 정책을 설명하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강진군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군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군수는 "지역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 여러분이 웃어야 강진군 전체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산구, 민·관·학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확장 학교 '발견'-동 '연계'-복지관 '관리' 통합 안전망 구축 추진

광주 광산구가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영케어러)의 생활 안정, 자립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광산구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월드비전, 지역 복지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이 학업 중단,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사회적지지 체계를 마련해 왔다.

지난 2024년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100세대에 총 6,500만 원의 세계비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상자 13명을 발굴해 자립·생계 안정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는 한발 먼저 도움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소년 발굴에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학교, 21개 동으로 협력망을 확장한다.

학교는 가족 돌봄 청소년을 발굴·발견하는 '최초 지점', 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돌봄 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서 참여하고, 지역 복지관과 월드비전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해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김준행 기자

화순군, 2026년 '화순사평빨래방' 운영 시작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2월 23일부터 2026년 '화순사평빨래방'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순사평빨래방'은 마을별 세탁일을 사전에 지정하고, 차량을 이용해 이불 세탁물을 수거·세탁·건조·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위생적 관리를 위해 수거된 이불은 ▲세탁물 검수(일록 및 상태 확인) ▲이름표 부착 ▲열록 제거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산

업용 대형 세탁기를 활용해 마을별로 세탁된다.

세탁이 완료된 이불은 ▲1차 건조(자연채광) ▲2차 건조(산업용 대형 건조기)를 거쳐 최종 검수 후 전용 세탁 봉투에 포장해 각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배달된다.

이 사업은 특히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세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김중환 기자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